

인상 깊은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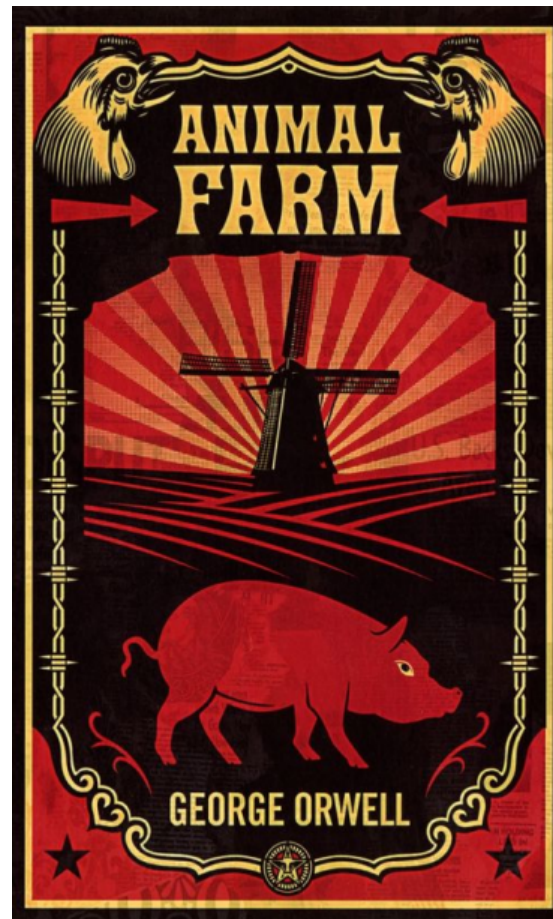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바깥에 있는 동물들은 돼지의 얼굴을
보다가 인간의 얼굴을 보았다. 인간의
얼굴에서 다시 돼지 얼굴로, 그리고 또 다
시 돼지의 얼굴에서 인간의 얼굴로 눈길
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고 누가 인
간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북 페스티벌

Book
festival

3108 이승재
3204 신성주
3211 차지우
34XX 우찬



동물농장

책
소
개

이 책은 영국의 작가인 조지 오웰이 소련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존스 농장에 살던 동물들이 가혹한 생활에
못 이겨 주인을 쫓아내고 직접 농장을 운영하지만, 결국
은 혁명을 주도한 권력층의 독재로 농장이 부패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1945년 출판)

인생책의 이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우화소설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스탈린'으로, 쫓겨난 스노볼은 스탈린과 갈등을 빚다가 쫓겨나게 된 '트로츠키'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동물농장은 스탈린 체제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히틀러 역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우리에게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해주고, 문학의 매력을 알게 해준다. 어쩌면 동물농장의 모습은 현재에도 어디선가에서 벌어지고 있을만한 이야기이다. 인간성을 묵살하는 권력 정치나 전체주의, 공포 정치 등으로 말이다. 이러한 현실성 있으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소설을 썼기에 지금까지도 훌륭한 정치 풍자 소설로 인정받고 널리 읽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QR코드를 통한 어플
다운로드

독자의 고민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한 책인가?

이 책은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감행한 혁명은 결국 또 다른 계급을 양산해내었고, 그 안에서 역시 민중은 억압을 받고 착취를 받는다. 결국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는 또다른 독재 체제가 생기는 순환일 뿐이고,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이 책은 현재에도 어딘가에서는 인간성이 존중받지 않고, 차별을 당하는 곳을 개선하고, 문제를 인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같다.

이 책의 시점은 무엇일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독자에게 신적 위치에서 이 모든 사건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읽는 이로 하여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비판할 수 있게 도와준다.

